



리 대표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제내성결핵퇴치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세계 결핵의 날을 이틀 앞두고 있던 지난 3월 22일 올림픽공원은 빨간풍선의 물결로 장관을 이루었다.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릴리와 대한결핵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희망의 빨간풍선 자전거마라톤 대회'에서 자전거 마라톤 시작 직전 참가자들이 결핵퇴치에 대한 염원을 담아 건강한 폐를 상징하는 '빨간 풍선'을 날린 것. 대회 당일 서투른 한국말로 인사를 건넨 한국릴리 아니 윗스트허이슨 대표의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는데, 그의 소감을 통해 다제내성결핵 문제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다국적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한국지사장으로 한국땅을 밟은 아니 윗스트허이슨의 결핵에 대한 생각과 한국생활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박연숙(본지기자), 사진제공 한국릴리

얼마 전 자전거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다제내성 결핵퇴치에 이처럼 적극적인 이유는?

결핵으로 인해 매년 2백만 명, 매일 5천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9백만의 결핵 환자 중 40만 명이 난치성 결핵으로 불리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 판명되고 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균에 감염된 환자 1명의 치료비는 일반 환자의 100배 정도이나 치료 확률은 50~60%로 낮고 많은 양의 약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적절한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다.

릴리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과 함께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에 맞서 상대적으로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꼭 필요하지만 소외 받는 분야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이야말로 글로벌 제약회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릴리가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매우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릴리는 어떤 기업인가?

릴리는 1982년 릴리 본사와 국내 제약회사의 합작법인으로 한국에 진출하여, 1998년 본사인 일라이 릴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릴리가 출범했다. 한국릴리는 1982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우울증, 정신분열병, ADHD, 당뇨병, 암, 발기부전, 골다공증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들을 한국시장에 출시해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있다.

우리의 미션은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다.

6개월 여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느낀 한국의 이미지?

자신이 있는 곳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그곳의 사람들이다. 한국문화 특유의 친절함과 배려 덕분에 지난 6개월간 한국에서 매우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외출해서 쇼핑 중이거나 무엇인가를 찾을 때면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아주 친절하나라인 것 같다.

사실 취임 전 한국에 와본 경험은 없지만 한국인은 내게 낯설지 않다. 미국 본사 및 러시아에 있을 때 한국인 직원들과 일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들의 능력과 업무윤리에 감탄했다. 그들과의 생활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 한 번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나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단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역사 및 문화, 경제에 대한 책을 읽고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 여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국릴리에 근무하는 동안 한국인과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다.

남다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전 세계적으로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한국릴리도 직원 한 명 한 명이 모든 업무를 진행할 때 항상 윤리경영을 염두에 두고 일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한국에서는 1, 2상 등 핵심 기술이 요구되는 기초

신약 개발 및 연구를 7가지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의료진의 역량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결과도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다. 기초임상은 특정 인종에 맞는 정확한 약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 성장과 함께 인구 고령화도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점은 한국 제약시장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R&D에 적극 투자하면 환자 개개인에게 좀더 개선된 치료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약품 공급을 신속하게 하여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국적제약사로서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릴리 본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과 함께 한국, 멕시코, 터키를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 인재들은 글로벌 무대에서도 손색없는 뛰어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반면 다른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신약의 가치가 저평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신약 개발의 의지를 저해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제내성결핵퇴치 및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일그림이 있다면?

한국정부도 지난해 '결핵퇴치 2030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의 결핵환자를 2030년까지 전염성 결핵환자를 100만 명당 1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릴리 역시 정부, 대한결핵협회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결핵 치료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환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과 환자 지원프로그램인 웰니스 프로그램을 2005년부터 진행, 정신과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운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약 4000여 명의 환자들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릴리는 2007년부터 국제당뇨연맹(IDF)과 함께 전세계 당뇨병 환자의 증상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시민의 일원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릴리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목표가 있다면?

전 세계의 릴리 지사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하는 한국릴리에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 지사를 확장하면서 릴리의 혁신적인 약들을 한국 국민들에게 공급해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또한 이러한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한국의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국 지사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